인 사 말

마음의 풍성함도 이루어 내는 결실의 계절을 넘으며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생명, 평화, 나눔, 사랑을 주제로 제16회 종교문화축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종교지도자 여러분과 내 외빈, 그리고 신도님들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면서 태풍과 호우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종교인의 마음을 모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존재를 밝히는 에너지이며 무한한 상상력의 산물이자 문화적인 자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종교는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민족과 함께 오랫동안 호흡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물질이 풍요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외감과 도덕불감증, 그리고 생명경시 현상은 다시금 종교의 위상을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더 많은 종교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종교문화축제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 종교계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어 시대의 현안에 부응해 왔다는 것이며,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수함을 드러내고 이해와 체험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바람을 항상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 종교의 신도들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종교적인 심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오늘의 행사가 갖는 또 하나의 미덕일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간 교류와 이해를 넘어 갈등과 소외를 치유하고 정신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가 가능하도록 성심으로 후원해주신 문화부 최광식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자승